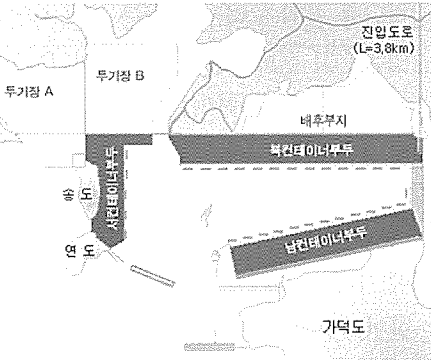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신항 개장행사 준비 본격 착수

해양강국 도약 축하 다채로운 행사 준비



해양수산부는 동북아 허브 항만구축을 위한 신항 1단계 3상석 조성사업이 내년 1월 개장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본격적인 개장식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해양부는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부산시, 경남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BPA), 부산시 도시개발공사(BUDCO), 부산신항만주식회사(PNC) 등 신항 개장과 관련된 기관을 망라한 '신항 개장행사 준비팀'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행사준비팀은 전체 회의를 열고 신항 개장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닌 사전행사를 선정하고 개장식까지 담당 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월15일 국내·외 항만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신항 개장에 따른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신항개장 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성공적인 신항 개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단축 마라톤 대회'를 내년 1월8일 새

로 개통되는 신항 배후도로 (경마공원-부두간 왕복 20km)에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후원하에 실시하기로 했다. 개장 전야제 행사로는 온 국민이 바다노래와 함께 신항 개장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열린 음악회'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1월초에 개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중에 열릴 개장식 본 행사는 사전행사의 분위기를 이어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바다 열림굿, 테마음악회, 영상물 상영, 제막식, 하역시범 등 허브 항만으로 힘차게 뻗어 나가는 신항의 이미지를 형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 임무 마치고 퇴역

해기사 양성의 요람이었던 한국해양대의 실습선 '한바다호'(3천492t·사진)가 30년간의 항해를 마치고 닻을 내렸다.

한국해양대는 10월28일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캠퍼스내 부두에서 한바다호 퇴역식을 열었다.

지난 1975년 일본 규슈의 우스키 조선소에서 건조된 뒤 독도로 첫 항해를 떠났던 해로부터 꼭 30년. 그동안 한바다호는 원양항해술 기관술 등을 가르치는 '움직이는 교실'로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5,000여명의 해기사를 배출해 우리나라 해운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매년 두 차례씩 100여명의 실습생을 태우고 원양을 항해하면서 한바다호가 달린 거리는 지구 둘레의 20배에 달하는 50만마일. 한바다호의 뒤는 오는 12월8일 인도되는 길이 117m, 너비 17.8m, 6,700톤급 크루저형으로 무선랜 위성통신, 고성능 엔진 등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2세(주니어) 실습선 '새 한바다호'가 잇게 된다.